

實學의 經濟思想

安 秉 直*

〈目 次〉

- I. 머리 말
- II. 社會經濟的 背景
- III. 土地制度의 改革思想
- IV. 商工業振興論
- V. 맺 음 말

I. 머리 말

實學은 18세기 전반기에서 19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展開된 새로운 學風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적 儒學의 한 分流였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儒學思想에 있어서 가장 先進의인 것이었으나, 本流의 地位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新時代를 예고하기는 하였으나 역사를 變革하는 사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19세기 중엽에 世界資本主義의 挑戰을 받았을 때 왜 自主的 對應에 失敗하였는가를 설명해 주는 思想史의 背景을 말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그 深刻性이 있다.

실학을 어떻게 定義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전통적 유학과는 달리 역사의 새로운 變化에 有效하게 대처하려는 새로운 學風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나, 일정한 理論的 體系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時務의 學」이라는 政策論이었고, 高踏의인 哲理를 探究하는 것은 아니었다. 「時務」에 대처하기 위한 政策論은 자연히 經驗主義에 빠질 위험성이 없을 수 없었고, 실학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를 두고 학자간에 政策의 방향은 각각 相異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실학을 「血緣·師弟·交友關係를 통해서 學問傾向을 같이 하는 세계의 流派」로 나누어 볼 수 밖에 없다.

〔(1) 星湖 李瀾을 大宗으로하는 經世致用派(18세기의 전반)——土地制度 및 行政機構 其他 制度上의 改革에 치중하는 學派.

〔(2) 燕岩 朴趾源을 중심으로하는 利用厚生派(18세기의 후반) ——商工業의 流通 및 生産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器具 一般 技術面의 革新을 指標로 하는 學派.

(3) 阮堂 金正喜에 이르러 一家를 이루게 된 實事求是派(19세기의 전반) ——經書 및 金石·典故의 考證을 爲主로 하는 學派.」

이렇게 보면, 實學의 經濟思想은 결국 (1) 17세기 이후의 移秧法의 普及등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기초로 하는 自立的 小農經營의 確立에 有利한 土地制度의 改革과 商品經濟의 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商工業의 振興에 관한 諸方案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李瀾의 金屬貨幣流通의 禁止策이라든지, 丁若鏞의 「閭田論」과 같이 위의 諸方案과 矛盾되는 政策方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諸政策方案은, 實學의 經濟思想에는 復古的 傾向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농업생산력 및 상공업의 발전이라는 新時代에 有効하게 대처한다는 사상적 潮流에 있어서 支流的 反動에 불과하였다.

그러면, 이 新時代는 中世的 自給自足體制를 克服하고 農民의 土地所有를 기초로하는 商業的 農業의 展開와 商品經濟의 發展이 本格的인 局面으로 접어들었다고 評價될 수 있는가. 우리가 實學思想이 아직도 儒學思想의 分流에 머물고 있었으며 또 近代의 思想으로 自己變身을 하지 못하였다는 事實로부터 暗示받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新時代는 中世的 自給自足體制에 商品經濟라는 새로운 局面을 追加시켰다는 것으로 理解될 수 밖에 없다. 舊體制는 아직도 健在했으며, 商品經濟라는 異物質은 그것을 補強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시대를 封建社會의 崩壞期라고 規定할 수 없으며, 그리고 실학사상을 근대사상의 端初의 形態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신시대와 실학사상은 증세사회 內部的 構造的 變質속에서 把握될 수가 있을 것이다.

II. 社會經濟的 背景

우리나라에 있어서 中世社會의 變質은 壬辰倭亂을 전후로 科田法 體制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地主制가 발전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과전법 체제하에서는 土地所有는 國家(受田者도 포함)的 所有와 農民의 保有라는 二重構造였으나, 지주제하에서는 國家的 所有, 地主的 所有와 農民의 保有라는 三重構造로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소유는 점차로 形骸化되어가고, 지주적 토지소유는 強化되어 갔다. 국가적 토지소유의 형해화는 王權의 空洞化現象을 수반하였으며, 丁若鏞이 개탄하듯 이조 후기의 국가가 국가로서의 꼴을 갖추지 못하였던 근본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다른 한편,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는 奴婢制의 土地經營을 약화시키고 並作制의 土地經營을 강화시켰으며, 그것은 또한 小農經營의 自立

의 發展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발전은 결국 小農經營의 自立的 發展에서 集約的으로 나타나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였던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水稻作에 있어서의 移秧法의 發展이었다. 이양법은 종래의 直播法에 비하여 「事半功倍」, 즉 農業生産力을 크게 向上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小農經營을 安定시켰다. 이양법이 소농경영을 안정시키게 된 것은 水稻作에서 節約된 勞動力을 水稻作의 裏作으로서의 麥作이나 棉花栽培 등 經濟作物의 耕作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소농경영의 多角化를 가능케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변화의 推動力인 小農經濟의 自立的 發展은 결국 이조후기 商品經濟發展의 生産力的 基礎를 마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중세사회의 上部構造를 크게 變質시켰다.

이조 전기의 租稅收取體系인 田稅·貢物·軍役은, 소농경영의 자립이 강화된 이조후기에 있어서는, 이제 適合치 않게 되었다. 地主制의 발전은 田稅를 形骸化하는 반면, 공물의 無節制한 徵收 및 黃口籤丁·白骨徵布라는 軍役의 負擔이 농민의 강력한 抵抗에 부딪힘으로써 어떠한 租稅體系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大同法과 均役法은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며, 불완전하나마 租稅는 田稅로 統一되어갔던 것이다. 조세의 土地單一稅로의 轉化, 즉 米에로의 統一은 결국 政府의 自給自足體制를 붕괴시켰으며, 이제 政府財政의 원활한 運用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품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세기말 이후 常平通寶의 지속적 鑄造는 이제 政府도 상품경제로부터 超然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宣告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商品經濟의 發展은 定期市인 場市를 출현케 하였다. 場市는, 壬辰倭亂 직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10日場으로 邑城의 門밖에서 한 두군데 열리는데 불과하였으나, 18세기 말 내지 19세기 초에는 전국에 1천여개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시는, 10日場에서 5日場으로 변하고, 또 한 邑에 5·6개처가 있게 되어 매일 장이 열리는 꼴이 되었는데, 장시의 발달은 南部에서 크게 진전되고, 北部는 뒤떨어졌다. 상품시장으로서의 定期市인 장시이외에 常設市場인 都市市場도 있었으나, 都市市場은 서울과 開城의 市廛이 있었을 뿐이었고, 水原·大邱·全州·平壤에는 겨우 18세기말 내지 19세기초에 와서야 市廛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시는, 농민들에게 日常的인 거래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아직도 定住商人階層의 出現을 가져올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품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장시에 등장하는 상품은 쌀·면포·파·마늘 등 농가의 생산물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못그릇·솥(鐵釜) 등 手工業의 생산물도 장시에 따라서는 중요한 거래품으로 등장하나 그다지 普遍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手工業의 原料가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극히 貧弱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농촌에 있어서 社會的 分業이 크게 進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장시에 나오는 상품은 주로 농민의 剩餘生産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商業的 農業이 아직도 전개되고 있지 못하며, 또 특정지방의 鑛器手工業과 冶鐵手工業을 예외로 친다면 農村手工業은 아직도 農家副業에 머물러 있었다. 都市手工業에 있어서까지도 專業的 手工業者 階層이 출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 시기의 수공업의 발전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의 生活相을 描寫하고 있는 18세기의 記錄들은 일반적으로 농민의 貧困相을 呼訴하고 있다. 統計資料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 후기의 발전적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朝鮮社會停滯論」을 극복하고자 하는 一連의 史學者들은 이조 후기의 社會相을 가급적 밝게 묘사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그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이조 후기 사회의 全面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조 후기에 있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발전의 전망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同時代人으로서 停滯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전망을 摸索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학자들의 諸論說은 상품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諸矛盾에 대한 解決策을 제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中國·日本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업과 수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들의 課題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III. 土地制度의 改革思想

이조 후기 土地制度의 기본적 矛盾은 地主制의 발전으로 國家的 土地所有가 붕괴과정에 접어들었다는 데 있었다. 지주제의 발전은 소농경영의 자립적 발전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조 중기 이전의 大土地所有와는 구별되는,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廢止될 수 없는 歷史의 大勢였다. 丁若鏞은 역사의 이러한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엄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즉 옛날에는 天子와 諸侯가 田地의 主人이었으나 지금은 온 백성이 전지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것이 圖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드시 수 백년을 두고 흔들리지 않아서, 차츰차츰 회수하고 施行한 다음에야 先王의 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처음에는 限田·名田·均田 같은 법으로 하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太阿

의 자루를 돌려잡으면 瓶에 담긴 물을 쏟음과 같이 거의 슬슬 막힘이 없을 것이다.」(『經世遺表』井田論三)

太阿는 王權을 상징하는 寶刀이다. 왕이 자루를 잡고 臣下를 포함하는 백성이 칼날을 잡아야 王權이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데, 만약 백성이 자루를 잡고 왕이 칼날을 잡는다면, 이미 왕의 權威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조후기 太阿의 자루를 잡고 있는 「백성」은 일반의 백성이 아니라 地主階級이었다. 李朝王朝體制를 維持・強化하려는 실학자들이 國家的 土地所有를 강화하고 地主的 土地所有를 制限・廢止하려고 하였던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학자들의 土地制度 改革思想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李瀼의 均田論, 朴趾源의 限田論 및 丁若鏞의 井田論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李瀼의 均田論은 지주들의 토지겸병은 시대의 大勢이므로 許容하되 인민들의 永業田에 한해서는 賣買를 禁止한다는 것이며, 朴趾源의 限田論은 各地主의 토지겸병을 名田에 국한시킴으로써 과도한 토지겸병을 막고 인민들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丁若鏞의 井田論은 궁극적으로 地主制를 廢止하고 國家的 土地所有를 實現하자는 것이다. 세 사람은 모두 지주적 토지소유를 억누르면서 국가적 토지소유를 堅持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나, 李瀼과 朴趾源은 시대의 대세인 지주적 토지소유와 타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丁若鏞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국가적 토지소유를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학자들은 국가적 토지소유를 붕괴시키면서 발전하는 地主的 土地所有라는 시대적 대세에 거슬리는 사상을 피력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中央集權의 李朝王朝體制를 維持・強化하려는 그들의 運命的 限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形式論理的으로만 따진다면 그들의 土地改革論은 反動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 實質의 內容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에는 매우 進步的인 데가 있다. 이조 후기의 地主階級은 淤를 중심으로 하는 水利事業을 행한다든지 농민들에게 農牛・農資金을 貸與한다든지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민들이 이루어놓은 생산력의 발전에 寄生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지주계급의 土地集中이 시대의 대세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농민들이 이루어놓은 농업생산력에 기생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주계급의 토지집중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도 배척되는 것이었으며, 또 政府의 租稅收入을 減少시킴으로써 國力을 消耗시키고 사회체제를 弛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학자들의 土地制度 改革論은 二重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私的 土地

所有의 發展을 억제·폐지하고 國家의 土地所有를 강화하려고 한 것은 復古的·反動的이었으나, 寄生的 지주제를 억제·폐지하고 國家의 財政을 充實히 하며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촉진하려고 한 것은 進歩的이었다. 따라서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을 如何히 評價해야 하는냐는 그들이 무엇을 媒介로 國家의 財政을 充實히 하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조후기의 역사적 대세였던 小農經營의 自立的 發展을 억제하고 이조전기의 奴婢制的 經營을 復活하려고 하였다면, 그들의 토지제도 개혁론은 반동적 사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17세기의 柳馨遠과는 달리 牛戶도 科田法體制에의 復歸를 提言하지는 못하고 있다. 李瀾은 그의 『本政書』에서 均田論마저 포기하고 말았으며, 丁若鏞도 국가적 토지소유를 지향하기는 하나 그 실현은 「수 백년」앞의 遼遠한 일로 展望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실학자들은 스스로 그들의 改革論에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국가재정의 충실과 관계되는 토지구유론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자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었으나 小農經營의 自立的 發展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을 갖고 提言하고 있다. 水原儒生 禹夏永의 集約的 農業經營論과 丁若鏞의 商品生産을 통한 多角的 農業經營論은 小農經營의 自立的 發展이라는 이 시대의 역사적 추세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提言이다. 농업의 集約的·多角的 經營은 奴婢勞動을 가지고는 어려우며, 小農民의 家族勞動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실학자들은 토지제도 개혁론에 있어서 토지구유론을 매우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意義는 土地國有論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지주계급의 寄生的 土地所有를 억제하고 小農經營의 自立的 發展에 有利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실학자들의 토지제도개혁론은 다음에서 보는 그들의 商工業振興論과 더불어 매우 진보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商工業振興論

自給自足を 원칙으로하는 中世社會에 있어서 商工業振興論이 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진보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末業觀이 강한 나라에 있어서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실학자들이 하나같이 상공업진흥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대세였다는 점은 틀림없다. 그들은 단순히 産業으로서의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조후기의 身分制度와의 관련에서 제기하고 있

다. 그들은 士農工商을, 종래대로 身分의 序列로서 파악하지 않고, 職業으로서 파악하기도 하였다. 놀고 먹는 兩班에게도 상업에 종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朴趾源과 朴齊家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丁若鏞도 벼슬하지 못하는 선비(士)의 存在意義를 선비들의 教師로서의, 그리고 發明家로서의 職能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학자들은 상공업의 진흥을 産業生産力의 發展이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中世的 身分秩序의 改編과의 관련하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공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상품유통을 促進시키며, 交換의 媒介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普及을 필요로 하였다. 종래 화폐로서 銅錢이 있기는 하였으나, 1文錢만으로는 큰 去來에는 불편하였다. 따라서 실학자들에게는 大錢論이 나오기도 하고, 丁若鏞은 銀貨·金貨의 鑄造論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金·銀貨의 鑄造論은 자연히 國富에 대한 觀念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는 金과 銀을 國富로 보고, 中國으로 流出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鑛山開發論이 제기되기도 하며, 農業·鑛業·手工業과 國富와의 관계에 관한 觀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비록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기는 하나, 金銀을 바로 國부로 본다는지 農業의 本業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지 하는 점에 있어서 아직도 中世的 觀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商工業振興論은 技術開發論을 불러일으켰다. 朴齊家의 『北學議』는 이 점을 가장 克明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丁若鏞의 『技藝論』의 一節을 인용해 본다.

「農業技術이 精해지면, 좁은 면적의 토지에서도 많은 量의 穀物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며, 勞力을 적게 하더라도 所出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릇 땅을 갈고, 씨뿌리고, 김매고, 베어들이고, 벼를 탈고, 까붙고, 찜어 밥짓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作業을 편리하게 해 주고 努力을 덜어 줄 것이다.

紡織技術이 精해지면, 原料의 消費가 적더라도 얻는 실(絲)의 양은 많아질 것이며, 일을 신속히 하여도 布帛은 훌륭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무릇 물에 담가 빨고, 실을 날고, 베짜고, 漂白하고, 무늬를 놓고 옷 짓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作業을 편리하게 해 주고 일을 덜어 줄 것이다.

軍事技術이 精해지면, 무릇 攻擊과 防禦, 輸送과 修築의 功에 모두 勇猛을 더해주고 危險으로부터 保護해 줄 것이다. 醫術이 精해지면, 무릇 脈을 보아 병을 診察하고, 藥性을 分別하고, 氣孔을 살피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과거 醫員들의 蒙昧와 誤謬까지도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百工의 技術이 精해지면, 住宅과 道具에서 城郭·船舶·車輛의 製造에 이르기까지 堅固하고 편리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우수한 技術을 습득하여, 이것을 獎勵하고 힘써 행한다면, 나라는 富裕해지고, 軍隊는 강해질 것이며, 백성의 生活은 向上되고, 健康은 增進될 것이다。」

技藝, 즉 技術의 進歩는 1次的으로 농업 및 수공업의 生産力을 향상시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개별경제의 生産力의 향상은 그 자체로서 社會的 生産力의 向上에 연결되지는 못한다. 사회적 生産力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개별경제의 生産力의 향상과 더불어 流通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개별경제간의 관련이 깊어져야 한다. 즉 社會的 生産力의 발전은 社會的 分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流通을 매개로 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朴齊家是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대체로 財物은 比喩컨대 샘(井)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滿),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女工이 쇠퇴하고, 쭈그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技巧를 숭상하지 않아서 나라에 工匠·陶冶의 일이 없게 되면, 技藝가 망하게 되며, 農事가 荒廢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四民(士·農·工·商)이 모두 困窮하여 救濟할 수 없게 된다.」(『北學議』內篇 市井)

그는 『論語』에서 말하는 「節用」은 국가재정의 절약을 말하는 것이며 인민생활의 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면서, 인민들은 이미 가난하여 절약할 것도 없으니 모름지기 消費를 촉진하여 생산에 자극을 주는 길만이 인민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인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길은 상업을 진흥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의 商業振興論은 단순히 상업만을 진흥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고 경제일반의 진흥의 媒介로서 상업을 진흥코자 했던 것이다. 자급자족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세적 경제구조 속에 살면서 생산은 孤立的인 소농경제의 勤儉節約에 의하여 진흥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 需要에 의하여 振興된다고 생각한 것은 진실로 卓見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는 더 나아가 國內商業뿐만이 아니라 對外通商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對外通商을 단순히 商品交易으로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文物의 交流로 파악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서쪽으로 箕萊(山東)까지 직선으로 600여리요, 南海郡 남쪽에서는 中國 남쪽의 吳楚와 서로 바라보이는 데 있다. 宋나라의 상선이 高麗와 통할 때에는 中國 남쪽의 明洲로 부터 7일만에 禮成江에 와 닿았으니, 가히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00년 동안 다른 나라와 배 한 척 통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어린 아이들이 손님을 보고 부끄러워 주저하거나 우는 것은, 그 本性이 그래서인 것이 아니요, 특히 본 것이 적어서 기괴하게 여겨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는 쉽게 놀라고, 남

을 의심하는 일이 많은데, 그 氣風이 불 것이 없고 재주와 식견이 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는 對外貿易을 통하여 商品交易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風俗을 改革하고 外國의 技術을 받아들여려고 하였다.

技術開發로 生産力을 향상시키고, 孤立的 小農經濟에 流通을 媒介로 사회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며, 鎖國의 나라를 열어서 世界로부터 文物을 받아들여도록 勸獎한 실학자들의 상업진흥론은 우리나라 중세사회의 변질의 매우 중요한 모멘트였다.

V. 맺 음 말

실학의 경제사상을 자본주의적 경제사상과 연결시켜서 評價하는 것은 확실히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固陋한 사상이라고만 평가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 실학사상의 歷史的 位置는 지금까지 생각해 온 바와 같이 中世社會 崩壞期의 사상이라기 보다는 中世社會의 前期에서 後期에로의 過渡期에 나타난 것으로 設定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그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실학의 경제사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進步的인 것이었지만 反動的인 要素도 그 속에 混在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학사상의 과도기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점에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실학의 경제사상에는 商工業振興論이 있을 뿐이며, 商工業의 발달의 결과 발생하는 모순을 제거하여 그것을 더욱 促進시키는 論議가 없다는 것이다. 英國의 重商主義는 商工業發展의 길을 두고 論議가 전개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실학의 經濟思想은 商工業의 (振興與否)를 두고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朴趾源, 朴齊家와 丁若鏞의 經濟思想에 있어서는 外來의 經濟思想이 중요한 役割을 하였다는 點을 附記해야 할 것이다.

둘째, 實學思想이 전개되게 된 國內의 경제적 배경은 바로 이 過渡期的 樣相을 나타내고 있었다. 奴婢制的 農業經營이 붕괴하는 가운데 自立의 小農經營이 展開되기 시작하였으며, 商品經濟도 定期市를 중심으로 비로소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定住商業體系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뚜렷한 商工業都市의 發達도 없었다. 따라서 農村의 家內手工業이외에는 뚜렷한 手工業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手工業者 階層의 存在는 明白하지 않다. 實學의 經濟思想도 결국 이러한 時代的 制約속에서 밖에 전개될 수 없었던 것이다.